

문현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콘텐츠
: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의 풍경들》에 대한 토론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복단대에 재학 중인 박사생 김지현입니다. 한국문화영상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데에 영광스러우면서도 엄청 긴장됩니다. 발표 준비하시면서 저를 토론자로 추천해주신 문현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발표 주제가 평소에도 저에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토론 자리까지 마련해주셔서 떨리면서도 즐겁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가족들이 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넷플릭스 시청권을 덕분에 저도 당당하게 혼자 눌러앉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소소한 궁금점이 이 토론문의 주를 이루기에 미흡하더라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나 제휴 콘텐츠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 《옥자》를 시작으로 등장했던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해가 지날수록 드라마 《킹덤》을 포함해서 장르가 다양해지고 콘텐츠 제작 수량도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 문현선 선생님께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셨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외에 디즈니 플러스, HBO MAX 등 다양해진 OTT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TV 방송에서 플랫폼으로의 매체 변화 위주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콘텐츠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논의도 앞으로 연구해나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도 오리지널 드라마를 분석 대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선정하신 작품들은 모두 작년에 굉장히 화제성이 높았고 신선한 소재와 설정을 다루고 있으며, 저도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도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같이 논의해 볼 만한 점을 2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1.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캐릭터 중심 서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대략 10화 내외의 분량으로 집중도 높은 연출과 정밀하게 표현된 캐릭터의 힘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캐릭터들의 힘으로 전체 서사를 이끌어나가기도 합니다. 드라마 《나 홀로 그대》의 인공지능 홀로조차 인간성을 지니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지요. 주조연 캐릭터 할 것 없이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각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제껏 기존 서사에서는 메인 캐릭터와 그(혹은 그녀)의 조력자 역할인 서브 캐릭터를 중심으로 메인 캐릭터가 단독으로 역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면 캐릭터 중심 서사의 드라마¹⁾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 캐릭터 솔로가 아닌 그를 받쳐주던 서브 캐릭터도 서사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이 부여되고, 각각의 캐릭터 하나 하나가 모여 마치 어벤져스급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킹덤》이나 《스위트홈》을 보면서 이런 OTT 서비스에서의 캐릭터 중심 서사 트렌드는 플랫폼 시

1)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로,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에서 슈퍼히어로 세계관(Marvel Cinematic Universe)을 설정하여 영화, 드라마 등 작품들을 모두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한다. 지금까지 상영했던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속 조연 캐릭터를 메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방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완다비전(WandaVision)》, 《팔콘 앤 윈터 솔져(The Falcon and The Winter Soldier)》가 방영되고 있으며, 곧 차기작 《로키(Loki)》가 방영될 예정이다. 이 드라마는 모두 앞으로 제작될 영화와 모두 이어진다.

스텝과 맞아떨어져 이루어진건지, 앞으로 OTT 서비스 외의 다른 매체에서도 캐릭터 중심 서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의 욕망 실현과 대의를 위한 정의 실현 사이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이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과도한 욕망 추구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도구로 삼으면서까지 말이죠. 그것도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혹은 평범한 삶을 위해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대의를 위한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교사 안은영》과 《스위트홈》에서 오로지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 괴생명체를 무찌릅니다. 또한 이 두 작품에 나오는 괴생명체는 인간의 욕망의 발현체입니다. 큰 틀로 보자면 인간이 괴생명체를 해치우는 정의 실현 내용이지만, 인간의 욕망 끼리의 충돌과 대립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인간의 비인간성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티프는 사회 현실 반영으로서의 모티프만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 내재된 욕망 자체의 모티프나 혹은 탈현실 모티프로써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논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문 발표를 마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